

미세먼지가 불량배라면, 기후변화는 핵폭탄

건강칼럼



서해현
서광병원 원장

간이 만들어낸 기후 변화가 이 방하를 녹게 한 원인이다. 200년 이내에 지구의 모든 빙하가 같은 운명에 처할 것이다.

대한민국도 기후변화에서 예외가 아니다. 조 천호 전 국립기상과학원장은 저서 '파란 하늘 빨간 지구'에서 '기록이 한번 깨지면 우연, 두 번 깨지면 우연의 반복, 세 번 깨지면 추세, 매번 깨지면 변화'라고 말한다. 1970년대 열대야 발생 일수는 연간 2-4회였으나 2010년대 들어서는 매년 10회 이상 발생하고 있다. 2019년 평균 열대야 일수는 10.1일로 지난해 17.7일보다는 적게 발생했다. 그렇지만 올해도 더위로 인한 온열질환으로 전국에서 10명 이상이 사망했다.

지구온도 상승의 주원인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프레온 같은 온실가스의 증가이다. 온실가스는 태양열로 생긴 지구의 복사열을 우주로 방출하는 과정을 차단하여 지구의 온도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그 중 대표는 이산화탄소. 산업혁명 이후 화석연료를 대량 사용한 결과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현재 이산화탄소 농도는 405ppm을 넘어섰고 산업혁명 이전에 비해 지구평균온도는 섭씨 1도 상승했다. 이산화탄소 농도 450ppm를 넘으면 2도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 추세가 지속된다면, 2040년경에 지구 기온 1.5도 상승이 예측된다. 2도 이상 기온이 오를 경우 지구는 자기 복원력을 잃고 파국 상태로 돌입할 수 있다. 기온 상승 추세가 지속된다면 북극얼음이 완전히 녹을 수 있다. 그린란드

빙하가 모두 녹으면 해수면이 6~7m 상승한다. 남극 빙하까지 모두 녹으면 해수면이 60~70m 가량 상승한다. 여섯번째 지구생물 대멸종기가 다가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10여년이 중 요하다고 한다. 해결책은 오리무중이고 지구의 미래는 미궁 속으로 빠지고 있다.

한국인들은 미세먼지에 관심이 많고 기후변 화에는 큰 관심이 없다. 미세먼지는 건강을 해 치는 두려운 존재이다. 그러나 위험성으로 따지 면 기후변화가 훨씬 치명적이다. 조천호 전 원 장은 "미세먼지가 뒷골목 폭력배 위험이라면, 기후변화는 핵폭탄 위험이다"라고 말한다. 런던 이나 로스앤젤레스의 스모그 사태는 미세먼지 때문이었다. 적절한 규제와 정책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기후변화는 다르다. 인류의 욕망을 절제해야 한다. 과연 기후변화 대응이 가능할까? 한 나라의 정책이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시스템을 바꿔야 할 문제이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온실가스 배출 7위 국가이다. 기후변화에 책임이 큰 나라이다. 노르 웨이의 대니얼 모린 박사 연구에 따르면, 서울 이 뉴욕 로스앤젤레스 상하이보다 많은 이산화 탄소를 배출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문제 때문에 쉽지 않다. 국가 우선순위에 있어서 멀어져 있다. 현재 우리가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30년 뒤 후손 에게 피해를 준다. 에너지 사용을 줄여야 한다. 화석연료인 석탄 석유 천연가스 사용을 줄여야 한다. 에너지 선택에서 기후변화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

브라질 아마존강 유역의 열대우림이 불길에 싸여 있다. 아마존 밀림을 태우는 연기가 이웃나라 아르헨티나 상공까지 뒤덮었다. 아마존 상류에 위치한 브라비아도 산불로 온 나라에 비상이 걸렸다. 계속 확산되는 대형 산불로 남아메리카 국가들 뿐 아니라 온 세계가 큰 우려를 하고 있다.

'지구의 허파' 아마존 열대우림이 사라질 위기에 있다. 농지를 확보하기 위해 밀림에 불을 지르는 위장영상 분석을 보면 대형 산불이 농업 생산을 위한 토지 확보를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브라질의 지구 반대편 아이슬란드에서 700년 나이의 '오크예퀴들(Okjokull)' 빙하 사망을 기념하는 행사가 지난 주 열렸다. 기후 변화 탓에 녹아내려 700년 만에 사라진 빙하를 추모하는 동판을 설치했다. 원래 오크예퀴들 빙하는 오크산 정상의 일부분을 덮을 만큼 규모가 컸었다. 지금은 작은 얼음 덩어리 정도로 줄었다. 인

기부하는 모든 이가 챔피언

무등의 시각



서충섭
사회부 차장대우

누군지 모른다는 것이다.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겠지만 누구도 그 거짓말의 진의를 의심하지는 않는다.

작년 12월에는 광산구 월곡동의 주민센터에 1톤 트럭이 사전 예고도 없이 들어와 복지센터 를 술렁이게 했다. 누가 보냈느냐는 질문에 트럭 운전수는 "절대 알리지 말고 그냥 주민들에게 고 루 나눠주라더라"고만 전하고 컵라면 100상자를 내려놓고 복지센터를 떠났다.

금호동에서도 연말마다 휠체어를 타고 주민 센터를 찾아와 현금 100만원이 든 봉투를 확전 하고 떠나는 장애인이었다고 한다. "어디서 나 신 돈이나"고 물어도 이 사람은 "알 것 없다"고만 답하고 떠난다는 것이다. 금호동 공무원들은 이 남성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노인연금과 장애인 수당을 아껴 모은 돈을 기부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불우이웃들을 위해 쓰고 있다.

양동에서도 경남 사천에 사는 한 기부자가 4 년째 쌀 600포대를 보내왔다. 지금은 경남에 살고 있지만 나고 자란 곳이 양동이라 고향 사람들을 위해 써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일일이 거론하기 어려울 정도로 기부하는 이들은 많다. 물론 이름 없는 기부자들의 아름다운 마음씨만큼이나 이름 있는 기부자들의 결단도 존중받아야 한다. 기부를 했다는 것이 알려지면 다른 기부를 부탁받을 수도 있

고, 무슨 의도로 기부하느냐는 눈초리를 사는 것도 감수해야 하기 때문.

필자도 여러 기부 단체들의 기부 행사 과정을 곁에서 지켜본 바 있다. 경기도 어렵고 의심도 많아지는 만큼 선선히 돈을 내어줄 곳은 많지 않았다. 다음에 꼭 도와주겠다고 품앗이를 약속하거나 한껏 치켜올려주거나, 안 도와주면 이 행사 못한다고 죽는 소리를 해야 한다.

돈만 마련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기부 수혜자들이 하루나마 즐거운 시간을 갖도록 식사와 공연도 마련하고, 이를 움직일 자원봉사 자도 필요하다. 이 역시도 많이 넘어선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다행인 것이다.

그렇게 각고의 노력 끝에 봉사활동 행사를 치 르더라도 그들에게 돌아갈 영예는 사진기사 한 장에 불과할 지 모른다. 어떻게 보면 기부행사 도 기계화되고 정형화됐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 목적은 해마다 끊이지 않고 기부물품을 전달하 기 위한 고육지책일 것이다.

필자도 몇 곳에 정기 후원을 하고 있다. 기부 라고 하기엔 푼돈이고, 자동이체라 노력도 들지 않는다. 그렇기에 기부를 위해 시간과 돈을 들 이는 모든 이들에게는 각자 나름의 생각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모두가 존중받고 찬사받을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올해도 기부하는 모든 이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많이 독려하기 위해 쉽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 기부는 어려운 과정이다. 안쓰는 물건 몇개 탁 하나 내놓는 게 아니라면 이 기부가 한번으로 끝날지 계속 이어져야 할지 고민부터 시작 된다.

나 하나 사는 것도 버거운데 누군가에게 꾸준히 기부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일 수도 있고 결국 마음이 약해져 그만두는 일도 허다하다. 잘 사는 이라고 해서 가진 것을 선뜻 내놓는 것이 즐거울지 만무하다. 그렇기에 기부하는 모든 이들이 찬사받아야 하는 이유다.

얼마 전 광주 동구의 이름 없는 기부천사가 올해도 쌀 1톤을 기부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필자도 동구청을 출입할 당시 이 기부천사의 선행을 접한 바 있다. 담당 과에 문의하니 트럭으로 쌀을 배달한 사람 역시 쌀을 사서 보낸 사람이

발언대

새 학기, 학교폭력 우리 모두가 관심 가져야

새 학기가 시작되면 설렘에 가득 찬 학생들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있다. 바로 '학교폭력' 때문이다. 누군가에게는 개학이 너무나 피하고 싶은 현실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학교폭력의 유형은 사소한 말다툼, 단순한 폭행, 사이버 불링 등 점차 다양한 유형으로 진화하고 있다.

'사이버 불링'의 경우에는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도가 높아지면서 메신저를 이용한 단체 채팅방에서 피해 학생에게 언어적 폭력을 행사하거나 데이터 갈취, 게임머니 등을 빼앗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어 면밀히 살피지 않으면 인식하기 어렵다.

따라서 부모들도 집중적인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아이의 피해여부를 눈치챌 수가 없다. 그래서 학교폭력 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의 '관심'이다.

피해학생의 경우, 학교폭력을 누군가에게 알리기를 꺼려하고 혼자서 견뎌내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교는 물론 가정 내에서도 아이의 행동과 언행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갑작스럽게 성적이 떨어지거나 평소보다 화를 많이 내고 눈물을 흘리는 등 아이의 행동에 변화가 있다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며 아이와의 대화를 통해 아이가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

이해 할 필요가 있다.

이에 경찰 또한 SPO(학교전담경찰관)과 117 학교폭력 상담센터 등을 통해 피해 학생들이 도움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상담 및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학기 캠페인 활동과 예방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학교폭력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주력하고 있다.

학교는 아이들이 가장 다음으로 사회화를 배워가는 중요한 교육기관이자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며 소중한 추억을 쌓는 곳이다.

그러나 이러한 학교에서의 기억들이 누군가에게는 지울 수 없는 큰 상처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 모두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이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켜보아야 한다.

순호진 (화성경찰서 경무계)

사설

가을장마·위협적 태풍까지 엄습하게 된 들녘

오랜 가을장마에 이어 위협적인 제13호 태풍 '링링'까지 올라오면서 수확을 앞둔 광주·전남지역의 들녘이 시름에 쌓였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6일 오후부터 이 지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 적잖은 피해가 우려된다. 초속 29m의 강한 바람과 함께 광주·전남 100mm, 남해안 일부 지역은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고됐다.

이번 태풍은 7일 오전 9시께 목포 서남서쪽 약 100km 부근 해상으로 접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광주와 전남지역은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지역의 해수면 양식장, 농촌 들녘, 과수원들은 태풍의 영향력이 큰 오른쪽에 위치해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태풍에 앞서 지리한 가을 장마로 상당수 농작물이 피해를 입은 터에 강력한 태풍까지 올라오고 있으니 걱정이 태산이다.

추석을 일주일여 앞두고 전남지역 각 산지마다 사과·배·포도 등 과일 수확이 한창이다. 하지만 최근 일주일 가까이 내린 비로 상품성이 크게 떨어진 상태다. 수확기에 일

조량이 부족하면 당도 등이 떨어질수 밖에 없다. 이달들어 광주와 전남지역의 강수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 90.8mm의 3배 이상인 276mm를 기록했다. 농작물의 상품성을 크게 떨어뜨린 주요인이다. 더욱이 강력한 태풍이 찾아와 낙과 피해마저 예상되는 상황 이어서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이러etz 가을장마 피해를 입은 들녘에 위협적인 태풍의 북상 소식은 앞친데 뒷친격이다. 농가에는 치명적 악재다. 장마와 태풍이 어쩔수 없는 지연 현상이라고 해서 손놓고 지나가기만 바랄수도 없는 처지다.

태풍의 진로가 다소 유동적이긴 하지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영향 반경이 상당히 넓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태풍 내습 예보에 비상체제를 가동, 대비 태세에 들어갔다고 한다. 시·도와 각 지자체의 대응은 당연하다. 그간의 상황에 더해 태풍 피해 규모가 적지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비상한 대응이 요구된다.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할 때를 놓치지 않도록 적절하게 가동할길 바란다. 타들어가는 농어의 애타는 심경을 각별하게 생각해야 할 때다.

한가위 코 앞인데 임금 체불 사례 늘고 있다

한가위를 앞두고 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임금 체불 신고 건수와 금액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임금 근로자들이 적지않은 제조업계의 임금 체불이 특히 심해 강력한 대책이 요구된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최근 발표한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임금체불 현황에 따르면 4천626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금액만 306억여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153건, 18억여원은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체임 신고건수는 4천 925건, 금액은 1천억여원이었다. 이 기간에 특히 체불액이 높게 나타난 것은 금호타이어가 더블스타로 매각되는 과정에서 근로자들에게 지불하지 못한 임금 650억여원이 한꺼번에 산정됐기 때문이다. 이를 감안하면 올해 체임 건수나 액수가 예년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실제 노동청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올해 신고건수와 액수는 지난 2017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698건, 101억여원이 증가했다.

광주노동청 관계자는 "지역 특성상 제조업계의 체임 신고건수가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건설업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소액규모 임금체불도 늘어나는 추세다"고 말했다. 건설 현장의 일용직 근로자들 임금 체불 사례 또한 적지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현장에서 굴삭기 등 장비를 운용하는 기사들은 물론 작업부들의 일당도 마찬가지다. 원정업체의 횡포에 하청, 재하청업체 근로자들이 특히 어려움을 겪고있지만 또 다른 일을 위해 노동청 등 관계 당국에 도움을 요청하기가 쉽지 않다.

고용노동부와 각 지방노동청은 추석 연휴 전 날인 오는 11일까지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이 기간 임금 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 2만9천여곳을 별도로 선정해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서 체불정산기동반을 운영한다.

명절 앞두고 임금 체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근로자들에게 법적·제도적 도움이 절실한 때다.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이들의 어려움을 풀어주어야 한다.

씨족 사회의 불편한 잔재

'지역 감정'하면 유별난 나라가 영국이다. 네 지역으로 나뉘어 서로 험뜯느라 안달이다. 월드컵때는 축구 발상지라는 자존감으로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아일랜드 아예 탄살림을 차린다.

이탈리아도 못지않다.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가의 자부심이 지나쳐 북부 지역민들은 남부 지역민을 '마피아 소굴 2등급민' 취급하기 일쑤다. 급진주의자들은 남부만의 국가를 만들자고 대놓고 주장하기도 한다. 캐나다의 경우 불어권인 퀘벡주가 분리 독립을 주장하고 미국의 남북간 인종 갈등 또한 여전하다.

56개 소수민족으로 이뤄진 중국 역시 지역감정으로 골치 아프다. 티베트와의 갈등은 매번 긴장 상태를 유발한다. 그에 비하면 우리의 지역감정은 인종, 피부색 등이 같은데 호남만 차별할만큼 특이하다. 지역감정 조장은 아무런 이유가 없다. 단지 정칙적으로 유리하다는 딱한가지 이유다. "거짓말 잘하고 음흉하고 앞에서는 간이라도 빼줄 듯 하다가 뒤통수치는 조센징". 일제 강점기때 일본이 조선 사람을 비하할 때 쓰던 말이다. 해방후 이를 '전라도'로 슬쩍 바꿔 써먹고 있는 게 정치인들이다.

60~70년대는 통했다. 그러나 지금은 민도가 높아져 약발이 많이 떨어졌다. 그런말을 했다가는 되려 역풍에 시달린다.

며칠전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권은 광주일고 정권. 서울 구정장 25명중 20명이 광주 전남·북 출신, 부·울·경이 뭉쳐 심판하자"며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발언을 했다가 공분을 사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필자와 같은 羅씨 성이다. 나씨는 본관이 전남 나주다. 희성이다보니 나이드신분들은 아직도 몇 대손까지 따져 항렬을 결정짓는다. 디지털시대에 성씨를 따지는 것이 시대착오적이지만 애교로 남길만 하다. 그러나 본관인 나주에 대고 지역 차별성 발언을 서슴지 않는 나 원내대표의 경우는 차원이 다르다.

며칠전 집안 어른 한 분이 "나경원은 어디 나씨냐"고 물었다. 그리고 "집안 망신 시켜야 한다"고 힐난했다. 이럴 때는 가수 나훈아의 모창 가수, 너훈아가 부럽다. 나씨 성을 가진 정치인이 한 말을 두고 같은 성(姓)바지라고 욕먹을 일인가. 정치가 성씨마저 부끄럽게하는 묘한 시대다. 씨족사회의 불편한 잔재다.

니윤수 칼럼니스트 nys8044@hmail.net

광주·전남 대표 정론지 **무등일보** 1988년 10월10일 창간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3(일간)

회장 조덕선 사장 발행·편집인 장인준 주필 김영태 편집국장 강동준

주소 (우) 61234 광주시 북구 제봉로 324(중흥동 700-5) SRB미디어빌딩 5층 대표전화 (062) 606-7700
광고접수 (062)606-7772 FAX (062)383-8765 구독신청 (062)606-7776

편집부 (062)606-7750 정치부 (062)606-7730 경제부 (062)606-7713 사회부 (062)606-7722 지역사회부 (062)606-7723
문화체육부 (062)606-7737 사진부 (062)606-7762 뉴미디어부 (062)606-7760 서훈지사 (02)313-1681 사설취재부 (062)606-7762

구독료 한달 10,000원·1부 500원 | 독자제보 062-606-7722·FAX 062-606-8765 | E-mail mdilbo@srb.co.kr

홈페이지 http://www.mdilbo.com 페이스북 www.facebook.com/mdilbo7700 ※ 본지는 신문윤리규명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언제 어디서든 광주를 한눈에!"

가장 빠른 광주뉴스

사랑방 뉴스를

무등일보·뉴스가 함께 만듭니다